

국제 기독교대학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ristian Higher Education and Christian Scholarship, 약칭 ICCHECS)

2001년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대학인 Calvin College(Grand Rapids, MI)의 교수개발프로그램인 카이퍼 세미나(Kuyper Seminar)를 국내에 도입하여 한국 기독교대학 교수와 기독교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신대학교, 백석대학교, 한동대학교 등의 기독교대학들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가 연합하여 Calvin College의 교수와 외국의 석학을 초청하여 교수개발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제1회는 한동대학교 주관으로 “Gods Calling to Academic Work”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제2회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기독교인의 책임과 교육과정 개발”, 제3회는 고신대학교 주관으로 “21세기 기독교고등교육의 역할과 도전”, 제4회(2015년)부터는 학술대회 형식을 도입하여 국제기독교대학 학술대회로 명명하고, 강연 및 강좌, 논문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국제 기독교대학컨퍼런스의 제5회는 백석대학교 주관으로 2017년 6월말에 실시될 예정이다.



사랑으로 섬기는 고신대학교

◎ 박신현 (고신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고신대학교는 ‘한국의 대표 기독교대학’, ‘세계의 명품 기독교대학’을 꿈꾸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강요에 반대하여 신앙의 순결을 지켰고, 해방 후에는 한국 기독교를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을 가진 공동체로 회복시키기 위해 1946년에 설립된 고신대학교는 개혁주의 신학과 기독교세계관을 한국 기독교계에 알리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며, 기독교학문과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이어가고 있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이며 기독교철학과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훌륭한 학자로서 오랫동안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쳐 온 전광식 박사가 2014년 1월, 고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한 이래, 기독교학문 연구와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부과정 전공필수인 ‘소명과 학문(기독교 세계관)’에 이어, ‘BEST세미나’를 신입생 필수과목으로 신설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 ‘개혁주의 문화의 기초’, ‘기독교문화와 대중문화’ 등 기존 기독교 세계관 관련 과목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2014년 가을부터 제1기 ‘기독교인문예술 최고위 과정’을 10주 과정으로 개설하고, 각 분야의 저명한 크리스천 리더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교계, 법조계, 경제계, 의료계, 예술계, 교육계, 외식업계 등 다양한 출신의 기독교인들 27명이 수강하여 한국 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금년 가을학기에도 제2기 강좌가 10월 5일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기독교 세계관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개설하여, 가을학기부터 석사과정 수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초대 원장으로 위촉된 조성국 교수를 비롯하여, 손봉호 박사(고신대 석좌교수, 서울대 명예교수), 강영안 박사(고려학원(고신대) 이사장, 서강대 명예교수) 등, 이 분야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이끌어 갈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기대된다.



기독교대학의 글로벌리더 백석대학교

김지원 (백석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백석대학교의 교육원리는 성경에 기초한 인성교육,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문연구, 인류를 섬기는 인재교육이다. 이러한 교육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백석대학교는 학생들이 재학하는 4년의 기간 동안 교양필수과목으로 『기독교의 이해』 시리즈 8개의 과목(매학기 1과목)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에는 바이블로드(신약), 바이블로드(구약), 기독교 세계관, 예수 알기(WhoRU, JESUS), 애덤 앤 이브, 사랑의 윤리, 정의의 윤리 등의 있다. 이들 과목의 강의는 각 학부의 책임목사나 신학전공 교수들이 맡고 있다.

『기독교의 이해』 교재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산하 기독교대학실천원에서는 2014년부터 그동안 사용되었던 교재의 재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재개정 작업의 특이점은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전공 분야를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돕기 위해 각 학부의 전공교수들이 교재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교재는 2015년 완성되어 2016년부터 수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들 수업과 별도로, 각 학부와 전공 학과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사회복지, 영적 간호,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물리치료 윤리 등 기독교 세계관과 전공학문을 통합한 과목 등이 운영되고 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한동대학교

최용준 (한동대 교수, 동역회 실행위원)

한동대는 기독교 세계관을 모든 학문의 기초로 생각하며 매우 강조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기독교 세계관 또는 창조와 진화 과목 둘 중의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현재 기독교 세계관은 학기마다 2학점으로 3분반이 개설되어 있으며 두 분반은 한글로, 한 분반은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 필자는 한글 한 분반, 영어 한 분반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각각 6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강의 방식 및 내용은 전반부 8주차까지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내용을 주로 강의하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팀별 발표가 진행된다. 팀 발표는 보통 4명의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며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이슈를 선택하여 그 주제에 관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다루어 보게 한다. 주로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들 중에는 ‘안락사’, ‘외모지상주의’, ‘혼전 관계’, ‘동성애’ 등이 있다. 이러한 발표는 필자인 교수가 한번 검토하고 수정한 후 약 20분에 걸쳐 발표하고 질의 응답을 받은 후, 두 개의 토론 주제를 팀별로 토론하고 남은 시간에 교수가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기말고사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 보면 이 수업을 통해 세계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나아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변혁의 주체로 살아야 하겠다는 헌신을 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그중에는 아직 세계관이 분명하지 않거나 심지어 비그리스도인들도 있다. 하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고 기말 고사에 자신의 세계관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